

# 온라인 발매 없는 한국경마, 매출 95% 감소

홍콩경마, 디지털 플랫폼 발매 지속 19~20시즌 매출 1216억 홍콩달러 일본도 온라인 발매로 매출액 증가 온라인 규제 한국은 매출 4.2% 불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산업과 문화의 지형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세계 경마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 아시아 경마 주요 시장인 홍콩, 일본, 한국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했고, 그 결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결과와 마주하고 있다.

**●뜻밖의 호황, 홍콩과 일본 경마**  
홍콩자키클럽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월부터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발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덕분에 2019~2020 시즌 경마매출은 1216억 홍콩달러(17조7827억 원)를 기록

했고 세금으로 121억 홍콩달러(1조7695억 원)를 납부했다. 또한 세금 외에 45억 홍콩달러(6581억 원)를 기부금으로 내놨다. 특히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며 홍콩 최대 세금납부기관, 최대 기부금 납부기관으로서 존재 의미를 다졌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10만 명에게 무료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생필품을 제공했다.

일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경마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작용했다. 지난해 일본 중앙경마시행체 JRA의 총 매출은 약 8개월의 무관중 경마에도 불구하고 2조9834억 엔(30조708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해 3.5%포인트나 증가했다. 매출의 30%를 차지하던 장외발매소 매출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0여만 명이 JRA 온라인 발매 회원으로 가입했다.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국고 납부액도 증가했다. 2020년 3298억 엔(3조3924억 원)을 납부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과 관련한 추가기부도 시행했다. 81억 엔(833억 원)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전년 대비 30.1% 매출액이 증가한 지방경마도 지자체의 재원에 이바지했다.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경마장은 지난해 911억 엔(9372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 이중 60억 엔(617억 원)을 지방 정부에 분배했다. 전년도의 11배나 되는 액수다.

**●위기 극복 모멘텀 없는 한국경마**  
이에 반해 오프라인 발매 외에 다른 발매 플랫폼이 없는 한국경마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4.2%에 불과하다. 매출 95%가 감소한 것이다.

한국마사회가 국가에 납부하던 1조 5000억 원의 세금과 1000억 원의 축산발전기금, 150억 원의 기부금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22% 집행에 그쳤다. 경마 시행에 삶에 걸고 있는 2만여 명의 말산업 종사자들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근본적인 발매 수단의 전환이 없다면 국내 경마산업과 말산업은 이대로 도태될 것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피켓팅 시위를 시작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홍기복 위원장.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으로 보인다. 7일부터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1인 피켓팅 시위가 국회 앞에서 시작됐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도 산업과 종사자,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마산업과 말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기수생활 23년’ 이준철, 조교사로 제2의 인생

김대근 조교사 이어 48조 마방 맡아 “홍바라기·홍행질주가 최고 기대주”

6월20일 기수로서 마지막 경주를 마친 이준철 기수는 7월부터 이듬 뒤에 조교사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붙었다.

스승이자 선배인 김대근 조교사에 이어 48조를 이어 받게 된 이준철 조교사. 그는 한국마사회 서울 경마공원 삼포마사에 자리잡은 마방에서 배태량 기수에서 ‘신참 조교사’로서 변신한 자신의 꿈과 포부를 밝혔다.

이준철이 처음 조교사를 꿈꾸게 된 데는 역시나 김대근 조교사의 영향이 컸다. 김대근 조교사는 그가 11년 전 기수로서 체중 감량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조교사라는 직업에 도전해 볼 것을 권유했다. 이준철은 “훌륭한 조교사 선배들을 지켜보며 나도 저런 조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준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김대근 조교사의 조언이 더욱 힘이 됐

다”고 말했다.

그는 김 조교사에게 배우고 싶은 점으로 정직함과 성실함을 꼽았다. 김대근 조교사는 조교사 생활 동안 휴가 한 번을 가지 않았을 정도로 마방 관리에 힘써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김 조교사가 후배 이준철 조교사에게 전한 조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준철 조교사에 따르면 “단순히 마방에만 있는 조교사가 아니라 이곳저곳을 살펴며 말을 계속 보러 다니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기수에서 조교사라는 역할 변화에 대해 물었다. 그는 “일상적인 변화는 크게 없지만 조교사로서 계속 생각해야했던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요즘 아침에 훈련하고 다시 마방에 와 말 손질과 수영장 훈련 등 말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준철 조교사는 이번 주 경주에서 2부



23년 기수 타이틀을 내려놓고 7월부터 조교사로 다시 태어난 이준철 조교사. 그는 “어떤 타이틀이든 말과의 교감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최상의 상태로 경주에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를 첫 출전시킨다. 본격적인 데뷔를 앞두고 그의 마방은 요즘 한참 분주하다. 이 조교사는 “워낙 오랫동안 함께해서 이제는 서

로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고, 또 본인들이 알아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직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복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웃음을 지었다.

신에 조교사는 말을 볼 때 어떤 점을 눈여겨볼까. 이 조교사는 “행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뛰어노는 모습이나 자세, 피부 등과 함께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본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그가 담당하고 있는 48조 마방에서 경마 팬이 주목할 그리고, 그가 기대를 걸고 있는 유망주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 이준철 조교사는 홍바라기, 홍행질주를 마방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기대주로 꼽았고, 블루마카롱도 주목해볼 말이라고 소개했다. 아주 예민하면서도 영민한 말이라 성적이 금세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팬 분들이 입장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를 하고 개업을 하게 됐지만, 항상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말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려 최상의 상태로 경주를 나갈 수 있게끔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 한국마사회, 건전경마 문화 온라인 캠페인

한국마사회는 ‘건전경마 문화 만들기 참여 캠페인’을 8일부터 8월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국민들과 함께 불법사설경마 근절 서약과 건전경마문화 참여 독려 등 올바른 경마문화 전파를 위해 기획됐다. 경마 팬은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명에게 음료 기프티콘도 경품으로 제공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건전경마 캠페인 외에 불법경마 단속 강화와 합법경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건전경마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닉스고, 미국서 올해 두 번째 대상경주 우승

한국마사회 닉스고가 3일 미국 프레리 경마장에서 열린 콘허스커 핸디캡(GⅢ, 1800m, 더트) 경주에서 우승했다. 출발 직후 라스트 저지먼트와 치열한 선두경합을 벌이다 상대가 추종한 틈을 파고들어 선두에 나섰다. 그 결과 2위와 10과 1/4마신(24.6m)의 대차의 일방적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다. 이번 우승으로 닉스고는 통산 21전 7승과 58억 원의 누적상금을 기록했다. 닉스고는 8월7일 휘트니 스테이크스(G, 1800m, 총상금 120만 달러)에 출전할 예정이다.

## 재활힐링승마센터 과천점, 2차 재활승마 모집

한국마사회 재활힐링승마센터 과천점은 2021년 2차 재활승마 참가자 12명을 1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선발된 이들은 서울경마공원 재활힐링센터 과천점에서 31일부터 9월19일까지 주 1회, 총 8회의 강습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이번 재활승마 참가자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운영여건으로 뇌병변과 발달(지적, 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한해 시행된다. 말산업 포털 사이트 호스피아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김우남 마사회장, 서울조교사협회 기념식 참석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7일 서울조교사협회 창립 28주년을 맞아 서울기수협회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김우남 회장을 비롯해 조용학 서울마주협회장, 신영철 한국경마기수협회장,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지원회장 등이 자리했다. 김우남 회장은 “행제는 같은 날 죽을 수 없어도 동지는 같은 날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마관계자라는 말보다 말산업 동지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온라인 발매 등 마사회와 경마 산업의 현안 해결과 미래 비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 골프



박민지가 지난주 컷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대보 하우스디 오픈에서 시즌 6승에 도전한다. 스포츠동아DB

## 파주 서원밸리CC서 오늘 티샷 “부담 내려놓고 내 플레이 집중”

‘대세’ 박민지(23)가 컷 탈락의 아쉬움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1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13번째 대회 ‘대보 하우스디 오픈’(총상금 10억 원·우승상금 1억8000만 원)이 9일부터 사흘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서원밸리CC(파72)에서 펼쳐진다. 대보그룹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신생 대회. ‘하우스디(hausD)’는 ‘우리 가족의 행복 D데이’를 상징하는 대보건설의 주주 브랜드다.

가장 주목을 끄는 선수는 단연 박민지다. 올 시즌 5승을 기록 중인 박민지는 한 주 휴식 후 나선 지난주 맥콜·모나파크 오픈에서 컷 탈락의 아쉬움을 맛봤다. 올 시즌 10개 대회에 출전한 그의 시즌 두 번째 컷 탈락. 한국여자오픈 타이틀까지 손에 쥐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다 예정대로 휴식을 선택했고, 이후 나선 대회에서 본선 통과에 실패해 더 아쉬움을 남겼다. 박민지는 “지난주에 컷 탈락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폭 쉬었다”며 위안(?)을 삼은 뒤 “매주 이어지는 대회로 연습량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자신있게 퍼트를 하지 못했다. 우승권에 있을 때보다 더 긴장하면서 경기를 한 것 같다”고 지난 대회를 돌아봤다.

“이번 대회에선 먼저 1라운드에서 10위 안에 들고, 이후 남은 라운드에서 우승을 바라보며 경기를 하고 싶다”고 털어놓은 그는 “이번 주에 좋은 성적을 내려놓고 내 플레이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비 오는 날 성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준전’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박민지와 함께 우승을 다룰 후보로는 지난주 3년 2개월 만에 우승컵을 품에 안았던 김해림(32), 올해 들어 항상 우승권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박현경(21), 대상포인트 1위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장하나(29) 등을 꼽을 수 있다. 김해림은 “한번 상승세를 타면 쪽 올라가는 편이라 이번 대회도 기대가 된다”며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테일러메이드 ‘올 뉴 300 미니 드라이버’ 출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고령 메이저 챔피언’ 필 미켈슨(미국)이 지난 6월 US오픈에서 ‘2번 드라이버’라고 불렀던 비밀병기가 정식 출시됐다. 테일러메이드는 8일 완전히 새로운 미니 드라이버 ‘올 뉴 300 미니 드라이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300 시리즈 드라이버는 지난 2000년 처음 출시된 이후 골프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골퍼들이 즐겨 찾는 제품으로 인식돼왔다. 테일러메이드는 향수를 갖고 있는 애호가들에게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갖춰 올 뉴 300 미니 드라이버를 출시했다. 최신 복합소재 구조의 307cc 헤드는 저중심 설계와 높은 관성 모멘트를 최적화해 비거리, 관용성, 컨트롤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 낮은 무게중심과 투우, 힐에 적절하게 배분된 무게 덕분에 낮은 스핀으로 높은 타출각을 형성해 주는 최적의 특성을 자랑한다. 페이스의 높이는 낮지만 고강도 티타늄 소재를 바탕으로 볼 스피드를 강화했고, 티 위가 아닌 잔디 위에서 플레이가 가능해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